



4면

학생의회 제안 7건, 내년 본예산에 반영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음 10월 8일) 제3387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점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방위산업 분야 사업 추진 본격화

전북도-전북대-경북대-부산대, K-방산 컨소시엄 구성 방산 분야 교육·연구, 인재양성 등 지속가능 협력 잇기로 전북도 행·재정적 지원 더해져 방위산업 육성 탄력 기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7일 전라도와 경북대, 부산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방위산업 분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경북대 이인중 연구산업부총장, 부산대 홍창남 교육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방위산업 관련 사업의 출발을 알렸다. 앞서 전북대는 한화시스템과 현대로템, 한국화이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다산기공 등과 협약을 맺

었고, 지난 10월 31일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위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대학 내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융합전공 및 계약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 경북대, 부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 방산 분야 교육과 연구, 인재양성, 산학협력 등에 지속가능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대식은 K-방위산업 분야 발전에 대한 전라도와 각 대학의 의지를 확인하고, 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공유



지난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방위산업 컨소시엄 발대식.

해 보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새만금을 K-방위산업 발전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한 전라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재정적 지원이 더해져 방위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발대식은 전북

대를 비롯한 각 기관이 보유한 방위산업 분야의 역량을 모아 K-방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며 "전북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K-방산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탄탄히 하고, K-방산이 국가 전략 산업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선도모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컨소시엄을 시작으로 전북대학교 등 3개 대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방위산업의 R&D 및 산학협력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길들인 매, 하늘 날고 꿩 낚아채다

진안군, 25일 도 무형문화재 한국민속 '매사냥' 시연회



진안군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진안군 매사냥 체험 홍보관(백운면 임진로 1342) 및 백운면 일대에서 한국민속매사냥 보존회(응사박정오)에서 한국민속 매사냥 시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사냥은 우리 고장 전통민속문화이며 전북도 무형문화재로 올해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3주년을 맞이한 인류 전통의 유산이다. 삼국시대에서부터 생행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매사냥 허가 발급자가 1,740명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전통을 이어왔다. 백운면은 날짐승이 많은 고원지대의 특성상 그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진안=우태만기자

이번 행사는 무형문화재인 박정오 응사와 박신은 외 6명의 이수자들은 그 맥을 이어 매를 부려 꿩을 잡는 전통 사냥법을 시연하게 된다. 특히, 매사냥 체험홍보관에서 전통 매 및 등의 전시물을 보는 것부터 봉반이, 떨이꾼, 배곤 등을 활용한 매사냥법 및 매포획 방법 시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기자

제17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이 행복한 전북 가족과 함께 만들어요' 도, 온가족이 함께하는 기념식·아동권리체험전



제17회 아동학대 예방의날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전라도청 대회의실에 제17회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교육청, 유관기관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아동학대 예방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념식에 이어 12시부터는 도청 다목적광장에서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아가페)' 행사가 펼쳐져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놀이를 통해 아동권리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발달권과 참여권, 생존권, 보호권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된

체험부스가 운영되었으며 △공예체험 등의 놀이부스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아동권리 체험버스 △아동범죄 예방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옹호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에 1,000여명이 아동과 가족이 함께 즐겼다. 특히,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도경찰청의 협조로 경찰체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 부스'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행복한 전북민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수능 이후 학사운영 내실화

도교육청, 안전·건강교육 등 9개 영역 학교 실정 맞게 운영 연말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 지정... 일탈행위 예방 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수능 이후의 학사운영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수능 이후부터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학년말을 자기계발 시기로 설계,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안전·건강교육 △금융·경제·부동산교육 △장애인식·정보보호교육 △법·선거·인권교육 △통일·보훈·독도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자기계발·진로체험활동 △온라인 강좌 콘텐츠 △대학 연계 탐방 등 9개 영역 외개 프로그램을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학년말 학사 운영 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 지도·감독 없는 상태의 자기도 학습, 영화 불법 다운로드 및 무분별한 영화 시청, 특정상급학교 진학현황 게시 등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12월 31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에는 음주, 흡연, 폭력, 성폭행, 사이버폭력, 도박 및 마약류 예방교육,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등 일탈행위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청소년 이용시설 합동 안전관리, 다중 밀집상황 예방 대책, 응급처치(CPR) 방법 등 안전교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이를 사례집으로 제작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수능 이후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학교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지속적으로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정음시

정음의 맛 상화차

찬바람 불면
정음 상화차로 건강 챙기세요!